



선녀벌레 / *Geisha distinctissima* (Walker, 1858)

---

구분	설명
생물분류	곤충
속국명	선녀벌레속
과국명	선녀벌레과
과명	Flatidae
일반특징	<p>몸은 연한 황록색 또는 초록색이고, 가끔 회백색 가루가 퍼져 있기도 하다. 머리는 앞가슴등판보다 훨씬 좁고, 정수리는 옆 가장자리 부분이 부풀어 있다. 작은방패판에는 선 3개가 세로로 높게 도드라져 있다.</p> <p>앞날개는 넓게 삼각형으로 발달해 있으며 크기가 큰 편이다. 앞날개의 색은 연한 초록색이고 불투명하며, 가장자리를 따라 붉은색 띠무늬가 있다. 앞날개의 앞쪽 끝 부분은 완만하고 둥글며, 뒤쪽 끝 부분은 직각을 이룬다. 뒷날개는 초록빛이 도는 흰색이며 투명하다. 평소에 날개를 세로로 접고 멈춰 있으면, 옆면에서 보았을 때 삼각형으로 보인다.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더 크다.</p> <p>성장한 애벌레는 몸이 연한 초록색을 띤다. 또한 하얀 솜과 같은 물질로 덮여 있다. 알은 양 끝이 뾰족한 원기둥 모양이고 불투명한 흰색이다.</p> <p>남부의 바닷가나 섬의 난대림, 농사 짓는 땅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. 1년에 한 번 나타난다. 5월 상순~중순에 부화한 애벌레는 새 가지나 잎으로 이동하여 즙을 먹는다. 이 때, 애벌레는 흰 솜같이 생긴 물질을 내보내므로 피해 입은 부위가 하얗게 보인다. 성장을 마친 애벌레는 7~8월쯤 성충이 되며 가지에서 즙을 먹는다.</p> <p>암컷은 9월쯤에 죽은 가지의 겉면이나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에 알을 낳는다. 애벌레는 정원에 심어 가꾸는 나무가 있는 곳이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자주 발생한다. 성충과 애벌레는 가지나 잎에서 나무즙을 먹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며, 때때로 감귤나무 등에도 피해를 입혀 과일이 떨어지기도 한다.</p> <p>한꺼번에 많은 수의 개체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즙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, 애벌레의 분비물과 허물이 오랜 기간 가지나 잎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다. 죽은 가지에서 알의 형태로 겨울을 보낸다.</p>